

영동군, 한전 본사 방문 송전선로 상생의길 찾아

영동군은 영동군수와 관계자들이 나누 한 국전력공사 본사를 방문, 서철수 전력계통부 사장 등 경영진을 만나 영동군 내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단호한 반대 입장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현재 영동군에는 양수발전소 건설과 연계된 345kV 신장수-무주영동 및 무주영동-신서원 송전선로, 영동개폐소, 154kV 환강변전소 등 총 4개의 대규모 전력시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영동군수는 "지산지소" 개념을 언급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지방 분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사업이 부득이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면, 영동군민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5대 핵심 요구사항'을 한전 측에 전달했다. 영동군수는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무료 안전교육 받으세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7일부터 만 15세 이상 세종시민 대상으로 안전한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무료 안전교육 신청을 받는다.

올해 안전교육은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운영되며, 상반기 교육은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은 기수별 25명씩 총 100명을 모집해 초급과정 3기, 중급 과정 1기 등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특히,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등을 익힐 수 있는 이론교육부터 자전거 타는 방법, 도로 주행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주말반을 올해도 편성해 평일에 참가가 어려운 시민들에게도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기수별로 총 10회에 걸쳐 회당 2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을 수료한 시민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공영자전거 어울림 7일 무료 이용권과 안전도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 신청은 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대중교통과 자전거 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강 과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용문화를 생활화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봉 기자

대전 지역 상장 유망기업과 현장소통

첫 기업 현장지원회의...상장 준비 기업 애로사항 청취로 지원방안 모색



대전시는 24일 유성구 전민동에 소재한 한빛레이저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기업현장지원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장(IPO)을 준비 중인 유망기업(D.I.S.A, IPO 프로그램 수료기업모임)을 격려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규제와 애로사항을 파악해 시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참석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상장 준비 과정의 어려움 ▲자금조달 문제 ▲각종 규제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생산라인과 연구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점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지원과 개선이 필요한 고충에 대해 산단 등 기업의 운영현장을 시찰하고 기업인과 소통을 강

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와 라이엇 게이즈는 22일,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인 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하 MSI)을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 제 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플레이-인 스테이지(예선전) ▲브레이크 스테이지(본선) ▲파이널(결승) 순으로 진행되며, 한국·미국·유럽·아시아태평양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들이 출전해 중반기 최고의 팀을 가리게 된다.

아울러 대회 기간 선수단과 운영인력 등 500여 명과 함께 국내외 팬 8만여 명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관광·소상공인 분야를 중심으로 약 1,000억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채봉 기자

중구 반려견 에너지파크 새단장해

그늘막 확충으로 쾌적함 UP, 혹서기 야간 운영 예약

대전 중구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려견 에너지파크'의 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우선 인조잔디가 깔린 프로그램 공간 전반에 대형 그늘막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고, 여름철 반려견의 발바닥 화상 위험을 줄이는 등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혹서기인 7-8월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영 시간을 조정한다.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였던 운영 시간을 평일(화-금)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야간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접근성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OK예약서비스'를 통한 사전예약제에 더해 ▲전화 사전예약 ▲현장 방문 접수 ▲당일 전화 접수까지 가능하도록 방식을 다양화해 시민들의 불

편을 해소했다. 아울러 대형견을 위한 '대형견 DAY'는 기존 매달 셋째·넷째 주에서 '마지막 주 목·금·토요일'로 변경해 운영 효율을 높였다.

중구 관계자는 "그늘막 설치와 야간 개장 등 이용자 중심의 개선을 통해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오는 4월 1일 서대원광장에서 구민들과 함께하는 '내 나무 갖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당일 공원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방울철쭉, 울마, 천냥금, 목가렛, 칼랑코에 등 가정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총 2,000본을 준비해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식물들은 실내 공기 정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어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종들로 구성됐다.

이채봉 기자

충남도, 서해수호의 날 맞아 참배



한 고 최환권 원사, 고 김경수·민평기·박석원 상사, 고 박보람 중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김선호 병장 등이 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발생한 주요 안보 사건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55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국가 차원의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24일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번 조문은 인접 지자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 도 차원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지사는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마친 뒤,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김 지사는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 앞에 마음이 무겁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상자분들도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현진 기자

기업 성장단계별 기술개발·생산·판로 지원

충청북도, 도내 중소기업 총 51개사 선정...5억 원 규모 맞춤형 지원 제공

충청북도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2개 사업의 기업선정평가 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51개사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자체 실시하는 '기업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 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도내 기업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팅 지원사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 왔다.

충북도는 올해 두 사업에 선정된 도내 기업 총 51개사에 약 5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영세기업 위기극복 컨설팅 지원사업'은 성장 초기 단계 기업 또는 성장 속도 향상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청한 48개사 중 24개사를 선정해 기술·경영 컨설팅과 국내 및 해외 인종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당 최대 330만원 한도로 지

원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등 가족친화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여 가족 친화 기업문화 확산 및 출생률 제고, 경쟁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잡기 위한 사업이다.

충북도는 올해 신청한 58개사 중 27개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사업화, 마케팅, 사업기획, 시설 현대화 등 기업의 기술개발·판로 개척·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강태인 충북도 경제기업과장은 "지속되는 국제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이는 두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성장 사다리 기반 확충에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현재 찾아가는 기업현장 지원반, 충청북도비즈알리미, 기업애로 콜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청취하고, 기업애로 SOS자문단 운영, 한국경제인협회 연계 경영자문상담회 개최를 통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기업 성장을 위한 핀셋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가 '산업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에 선정되었다.

'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국비 237억원, 도비 0.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BST-ZONE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실습교육과 제조 SI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구 리 시

2026

장자호수

벚꽃마실

버스킹 | 퍼레이드 | 체험 부스 | 와구리 굿즈 이벤트 | 거리 전시

2026. 4. 11. (토) ~ 4. 18. (토) 장자대로 일원(장자호수공원)

4.11. (토)

건기행사 / 벚꽃버스킹
거리 농악 퍼레이드
개막공연 / 부스운영

4.12. (일)

백파이프&폴크댄스 퍼레이드
가곡의 밤 콘서트
부스운영

신난당!

와~ 이쁘다!

문의 | 문화예술과 ☎ 031-550-2485